

전북 전업농가비율 65.4%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농가 중 경영형태로 논벼가 1위

전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업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 중 경영형태로는 논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전북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가 인구는 9만2,000가구, 2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농가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이며,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8.0%로 전국 4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 전업농가 비율은 전북이 65.4%(6만2,000 가구)로 전국 1위인 반면, 겸업농가 비율은 34.6%(3만3,000 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경영형태별 농가는 논벼가 51.7%로 1위이며, 과수는 4.8%로 7위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 농가는 전북이 4.9%로 가장 많았으나,

여기는 전북이 3,000가구로 0.4%에 불과했다. 여기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45.7%)에 이어 전북이 41.9%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임가는 1만1,000가구, 임가 비율은 총가구의 1.5%, 임가인구는 2만5,000명에 불과했다. 임가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이며, 임가 고령인구 비율은 전북이 42.5%로 전국 44.8% 보다 낮았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5일, 2020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동차부품산업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필요 지원 방안 논의

전북 인적자원개발위, 자동차부품산업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전북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15일, 2020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동차부품산업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와 지원기관, 김용일 제논전장(주)대표와 참원금속공업(주), (주)한국폴드김제, (주)세움, (주)탑피온, (주)유니캡, (주)케이원 등 도내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체 및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GM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 기동중단으로 인한 군

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최근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전북 지역 경제 및 고용 동향과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부품 기업체 피해 현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고용관서 및 지원기관, 인자위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새로운 산업군으로의 새로운 시장 가치 창출 노력과 자동차 부품산업의 타 산업과의 연계방안,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사 제품을 활용한 중소기업 육성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필요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현장감 있게 논의했다. 한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북도 전략산업별(자동차

부품산업분과, 농식품·생명산업분과, 미래(탄소)산업분과, 정보통신·ICT산업분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산업별 인력양성 방향과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오며, 산업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력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선홍 위원장은 "전북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군산시 상생형일자리,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각 지원기관 등이 협력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역량을 키우고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공유의 장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대규모 풀사료 수확 연시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새만금 간척지의 대규모 유휴지에서 농기계를 이용한 풀사료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확 연시회를 연다. 16일 부안에서 열리는 연시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단, 고창부안축협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업인 및 영농법인 등이 참석한다. 농진청은 이날 간척지에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IRG) 재배 및 건조 제조 기술을 설명하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간척지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농진청은 새만금 간척지 유휴지에 대규모 조사료 생산시스템을 적용하는 연구 사업을 지역 영농법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

월 새만금 간척지 450헥타르(ha)에 파종한 IRG 생산에는 대규모 재배지에 맞게 파종에서 수확까지를 일원화한 초대형 농기계를 이용했다. 재배지 토양은 모래 함량이 86.3~94.8%로 매우 높고 유기물 함량이 3g/kg로 일반 농경지의 1/10 수준으로 낮았지만, IRG 생육은 양호했다. 수확 전 사료가치 평가 결과 가스화양분함량(TDN) 가축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 함량은 56%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가 잘 먹고 사료가치가 높은 IRG는 국내 겨울 사료작물 재배

면적의 약 87%를 차지하며, 습해에 강해 벼 수확 후 논뒷구루(답리자)로 주로 재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국내에 필요한 풀사료는 연간 약 600만 톤으로 해마다 110만 톤의 건조가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라며 "새만금 간척지 유휴지를 활용한 대규모 풀사료 재배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과 풀사료 자급률을 늘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비대면 영농자료 제공 차원에서 IRG 수확 후 건조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rdakorea) '농업기술알기' 메뉴에 게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공, 정원디자인 공모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국민들의 생태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2020 한국도로공사 정원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의 공모주제는 '길과 정원, 함께하기 좋은 날'로,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부와 관련분야 대학·대학원·직업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areumi@ex.co.kr)으로 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서류심사 결과 선정된 14개의 작품(일반부 7개, 학생부 7개)은 오는 9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정원박람회'에 참가자가 직접 설치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중·소농 소득 안정, 신선먹거리 공급,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내실화로 '재도약'

'농업인 중심·소비자가 공감하는 직매장' 운영 업무 추진 전북농협, 현장모니터링·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 강화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중·소농 소득 안정, 신선먹거리 공급,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지난 2012년 4월 완주군 용진농협 1호점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말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을 40개소로 확대 운영하면서, 약 7천여 명의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유통경로를 최소화한 직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식품 국내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중요성 인식도 제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성장했다. 전북농협은 이러한 로컬푸드 가치 확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기 위해 '농업인 중심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직매장' 운영을 위한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모니터링 강화, 농업인 교육 강화, 농업인 중심 로컬푸드 출하회 운영,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로컬푸드 원직에 입각한 직매장 운영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해 현장 밀착형 지도·지원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진행 중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최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내실화를 통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해 얼굴 있는 먹거리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대장암

폐암 적정성평가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7차, 폐암 5차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기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간 원발성 대장암·폐암으로 수술 받은 만18세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됐다. 전북대병원은 대장암 평가에서 전문인력 구성여부와 암 가족력 확인비율, 절제술의 안전성 평가 기록을 등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종합점수 99.97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1등급을 받았다. 폐암 평가에서는 암 관련 전문의의 암병기 기록, 치료 전 병리학적 확정 진단 비율 등 9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종합점수 99.53로 최고등급을 받았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악화'가 원인 중기 CEO 절반 "여름휴가 반납"

가장 효과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등 통한 가계소득 보장 이 68.7%로 가장 많이 꼽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의 절반 가량(51.3%)은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에 동일한 내용의 조사 결과 '휴가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26.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CEO들이 휴가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휴가계획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이 없다'는 의견이 59.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중 수시 휴가사용으로 별도 계획 없음(29.2%) △출장, 단체행사 등의 일정상 불가능(11.0%) △여행비 등 경제적 부담(11.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CEO들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가소비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응답했다. 응답 CEO의 절반 이상(55.3%)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증식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정부정책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CEO는 10명 중 4명(4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중소기업 CEO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내수활성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고용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보장'(6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소득공제 확대 등 상품 등 직접적인 소비지원'(49.0%)이 뒤를 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기업경영 현실을 반영하듯이, 중소기업 CEO들 절반은 휴가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소비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기CEO들은 장기적인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세심한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윤상 기자

aT,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 참가기업 모집

8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에 참가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식품대전은 코로나19에 따라 다른 어느 해보다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판로를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등 다양한 판로개척

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식품트렌드 정보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진행할 예정이며,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식품박람회인 대한민국식품대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www.koreafodshow.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내외 식품제조·가공·유통과 관련된 모든 중소기업은 참가신청

이 가능하며, 국산농산물 사용비중 등을 평가해 최종 참가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식품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들은 선발에서 가중치가 부여된다. 참가업체들은 박람회 기간 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하며, 국내외 바이어의 1:1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가기업의 제품정보를 담은 디렉토리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관련기관, 협회 등에 제공해 지속적인 판로개척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열린 '2019 대한민국식품대전'은 220여 개 국내 업체가 참가했으며, 국내 바이어 66명과 178여 명의 상담을 체결했다. /김윤상 기자